

배포 일시	2022. 9. 20.(화)		
담당 부서	도로국	책임자	과 장 양희관 (044-201-3888)
	도로건설과	담당자	사무관 이용재 (044-201-3891)
보도일시	2022년 9월 2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0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지리산 관문과 대전-통영고속도로 잇는 산청지역 국도 개통 - 국도 59호선 21일 오후 3시 전면 개통... 안전성·편의성 향상 기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도 59호선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금서면까지 약 6.0km 구간을 새롭게 개설하여 9월 21일 오후 3시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.
 - 해당 구간은 대전-통영 간 고속도로 산청IC와 지리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리산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.
 - 사업비 1,073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‘16년 4월 착공한 이후 6년 5개월에 걸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.
- 기존 도로는 급격한 굴곡 등으로 도로의 선형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, 장마철 잦은 비탈면 붕괴, 겨울철 결빙 등 위험 요소도 많아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.
 -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.0km의 산청터널 등을 구축해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, 경사를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안전한 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
- 특히, 터널 내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대피통로 및 각종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터널 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.
- 교통사고 예방 효과 외에도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3분의 1 수준(20→6분)으로 줄어들고 운행거리(12.9→6.0km)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며,
 - 천왕봉, 대원사, 중산리 등 ‘지리산권’과 <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지> 인 ‘동의보감촌’ 등 인근 관광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양희관 도로건설과장은 “이번 삼장-산청구간 개통으로 국도 59호선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 - “앞으로도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한 도로 구간을 지속 발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 양희관 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 이용재 (044-201-3891) 주무관 박경미 (044-201-3892)
<협조>	부산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	책임자	과 장 조규희 (051-660-1140)
		담당자	주무관 엄정우 (051-660-1143)



참고 1

위치도



참고2

개통구간 전경



신촌교차로 일원



산청터널